‘붓의 신선’이 그려낸 부처님을 만나다

불교중앙박물관 ‘호선 의겸’展…6월 29일까지

조선 畵師 의겸 스님 조명
국보 ‘해인사 영산회상도’
지정 이후 첫 서울 나들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과 이어진 정유재란의 7년 전쟁으로 조선의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사찰 역시 비켜가지 못했다. 많은 사찰이 전화(戰火)의 피해를 입었고, 전각과 불상, 불화들이 소실됐다.

전쟁 이후 불교계는 전국적인 불사를 추진하며 산문을 일으켜 세웠다. 당시 불사를 담당한 주역들이 화승(畵僧), 불모(佛母·조각승) 등 승려 장인(僧匠)들이다.

이중 의겸 스님(생몰 미상)은 1713년부터 1757년까지 40여 년간 호남과 지리산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18세기 전반 조계산문(曹溪山門)의 대표적인 화승이다. 그는 통도사의 임한파(任閑派)와 더불어 18세기 불교화단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록에 따르면 의겸 스님은 ‘붓의 신선(毫仙)’ ‘존경받는 어른(尊宿)’ ‘크고 올바른 모범(大正經)’이라는 존칭으로 불리며 단순 장인을 넘어 당시 교단에서 존경받는 수행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사(畵師)이자 수행자인 의겸 스님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4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박물관 제1·2전시실에서 기획전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7년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이 승려 장인을 조명하는 첫 전시여서 의미가 깊다.

기획전에는 의겸 스님의 뛰어난 예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성보유산 총 20건 47점(국보 3건, 보물 7건, 유형 1건)이 전시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호선 의겸’ 기획전에 전시되는 국보 ‘해인사 영산회상도’. 처음으로 산문을 나와 서울서 전시된다.

특히 최근 학술·예술·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국보 지정 이후 첫 서울 전시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각각 만나 볼 수 있다.

전시는 △험난한 파도를 거쳐 친견한 관음보살님 △불사(佛事)를 이루다 △새로운 도상을 받아들이다 △수화사(首畵師) 의겸 스님 △불화에 담긴 불교의식 △의겸 스님을 따른 스님들 △전각에 구현한 부처님 세계로 구성된다.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정수로 손꼽히는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보물)’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보물)’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번 전시회의 주요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다.

전시 대미는 순천 송광사 불조전의 ‘오십삼불회도’가 장식한다. 의겸 스님이 조성한 ‘오십삼불회도’는 중앙의 7불탱화(七佛幀畫)를 중심으로 하여 53불도가 좌우 6폭으로 나뉘어 그려져 있는 불화다. 불교중앙박물관 전시공간 3면을 ‘오십삼불회도’를 전시하고 중앙에 죽비와 좌복을 둬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의겸 스님 기획전을 시작으로 화승, 조각승들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내년에는 빼어난 작품을 남긴 조각승을 주제로 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겸 스님의 제자들, 그 계맥들을 조명하는 전시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가 주목하는 ‘K-불교’와 ‘힙한 불교’의 근간에는 한국불교를 꽃피우는 데에 이바지하였던 화사 스님들의 구도 열정과 예술혼이 담겨있다”면서 “관람객들이 의겸 스님의 예술적 정수를 통해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불교의 달, 불교학계 학술대회 ‘풍성’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과 연등회가 있는 4~5월을 ‘불교의 달’로 지정한 가운데, 불교학계에서도 사찰 문화와 역사, 한국불교 전법포교 방안 등을 조명하는 학술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은 4월 18일 오후 1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근현대 불교에서의 범어사 위상’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리며,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근현대기 범어사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불교정화운동, 교육불사 등을 조명한다.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은 ‘백용성 스님 전법과 동산 선사’를,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은 ‘선학원과 범어사 역할’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경허 성우와 범어사 선풍의 진작’을 각각 발표한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동산 대종사의 불교정화운동 참여 행적과 의의’를,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동국대와 범어사-허영호와 김법린’을 조명한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특별발표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동산 대종사의 유묵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한국불교학회**(학회장 자현 스님)와 공동으로 4월 25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리산 대화엄사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1부 ‘대화엄사를 세우다’, 2부 ‘호남불교의 중심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의 산문을 연 연기법사(자현 스님) △근현대 화엄사의 기틀을 세운 도광 큰스님(전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종석 스님) △근현대 화엄사 화합의 정신을 세운 도천 큰스님(김우영 전 전주교대 총장)가 발표된다.

범어사 · 대각사상연구원
근현대 범어사 위상 조명
화엄사 · 한국불교학회
화엄사 역사 문화 살펴
교불련 등 세미나 잇달아

2부에서는 △한국불교의 적멸당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의미 분석(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무진 스님) △호남 차문화의 시원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문승옥 지리산다문화 예술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대전대 교수)는 4월 23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0차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만불교에서 구하는 한국불교 전법·포교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의 ‘대만불교에서 배우는 불교의 세계화 비전’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000년대 대만불교 전법포교의 변화 특징(곽뢰, 동국대) △대한 신흥 사대종문의 전법포교 활동의 현주소(양정연, 한림대) △대만불교 전통 종단 및 비구니회의 활동(김응철, 중앙승가대)가 주제 발표된다.

이밖에도 **인제대 화쟁인문학연구소**(소장 박태원·인제대 석좌교수)는 4월 24일 오후 1시 교내 본관 2층 강당에서 ‘화쟁불교학의 수립’을 주제로 1차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태원 인제대 화쟁인문학연구소장의 ‘화쟁불교학의 수립 근거와 전망’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우동필 전남대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초기불교의 화쟁불교학적 탐구’, 김현구 전남대 학술연구교수의 ‘대승불교의 화쟁불교학적 탐구’, 김태수 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수의 ‘원효사상의 화쟁불교학적 탐구’가 발표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화예술연구소(소장 차차석)는 4월 25일 오후 1시 30분 교내 호운관에서 ‘실버사회와 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제2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염지혜 중원대 교수가 ‘실버사회의 도래와 불교계의 대응’, 황정일 박사(동국대)가 ‘늙음에 대한 불교적 성찰’, 이명호 박사(경희대)가 ‘불교계 노인요양시설의 현황과 전망’, 임시연 만다라심리상담연구소장이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심리 치유 고찰’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신중일 기자

“33관음성지 순례, 여행 넘어선 수행”

문화사업단, 2025년 1차 회향식…85명 증서 받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7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년 제1차 33관음성지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향식에서 문화사업단은 올해 3월까지 관음성지 33곳의 순례를 완료한 85명에게 회향증서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회향증서를 받은 참가자들은 문화사업단이 기획·발간한 순례책자 ‘한국 33관음성지’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참배한 뒤 각 사찰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도장을 모두 찍어 사업단에 제출하며 순례를 인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사업국장 하원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33관음성지 순례는 불교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사회 공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체험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33관음성지 순례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순례자들을 대표해 회향 소감을 전한 정만수 씨는 “33관음성지 순례는 여행을 넘어 수행이 됐다”고 밝혔다.

선운사 신도인 정 씨는 도반 8명과 함께 지난해 3월 28일 태화산 마곡사를 시작으로 8차에 걸쳐 전국 관음성지를 순례했다. 특히 영월 법흥사 적멸보궁이 인상 깊었다고 밝힌 정 씨는 “33관음성지 순례는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느끼는 계기이자 불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행이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4월 7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년 제1차 33관음성지 회향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회향증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찬불가 포교 재시동…대중화 나서겠습니다”

인터뷰 박성규 한국불교음악인협회 8대 회장

올해 1월 1일 취임…2년 임기
취임식 대신 3월 30일 공연
운문 스님, 김동환 교수 추모
전문가 합창단 ‘BSE’ 창단해

“코로나로 협회 활동이 침체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 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젊어진 찬불가로 대중을 사로잡겠습니다.”

박성규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제8대 회장〈사진〉은 4월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장 취임 소감으로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1일 협회원들의 추대로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박 회장은 취임식 대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던 협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공연을 추진했다. 3월 30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공연장에서 열린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정기공연은 찬불가 제작과 보급에 힘썼던 운문 스님(2018년 원적)과 김동환 중앙대 명예교수(2020년 별세)의 추모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영원한 기억, 빛나는 울림’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대구 보림사 아마타 합창단, 서울 메타소리 합창단과 불교솔리스트앙상블(이하 BSE)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들 합창단들은 대행 선사의 선법가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임의 소식’과 운문 스님의 찬불가 ‘예불가’ ‘애착을 끊으라’ 등을 공연했다.



이날 첫 공연을 한 ‘BSE’는 불교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문가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현재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성악가들 44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 창단 기념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종교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협회에도 실용음악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라고 놀랄 정도의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음악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 레퍼토리에도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협회의 중흥을 꿈꾸는 박 회장은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비영리단체인 협회의 법인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찬불가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종단 지도자스님들과 전국 사찰 주지스님들을 만나 불교음악 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협회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한불교진흥원의 단체 지원 공모 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중일 기자

싯다르타, 금빛으로 피어나다

토포하우스 서울 · 대구
이해기 작가 개인전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일생을 금니로 그려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토포하우스 서울과 대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평생을 금빛 불모(佛母)로 살아온 이해기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금빛으로 피어난 싯다르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40대에 전념해 완성한 ‘부처님의 일생’ 시리즈와 부처님의 뒷모습에서 스스로 자기자신과 만나는 ‘나를 만나다(Looking mysel)’시리즈, 그리고 ‘색즉시공(色卽是空)’,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의 불교 사상을 꽃과 해마, 나비 등을 통해 나타낸 근작 등을 전시한다.



이해기 作 천상천하유아독존, 48.2x45.2cm, 감지에 금, 2001년.

서울 전시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며, 대구 전시는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신중일 기자